

# 로마제국의 대(對)동방 군사정책: BC31~AD200

조영식\*

1. 머리말
2. 원수정 초기부터 네로 황제까지: BC31~AD68
3.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까지: AD69~117
4. 하드리아누스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 AD118~200
5. 맺음말

## 1. 머리말

미국, 중국, 한국 등 새로운 지도자 선택을 통해 당면한 세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구상의 또 다른 저편에는 해묵은 분쟁을 빌미로 연일 포성이 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중동이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 위기만큼이나 민족적 긴장상태가 몇지 않는 곳이다. 과연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가에 전쟁으로밖에 자신의 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긴장상태를 이어나가야만 하는가? 근동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결이라는 역사와 관련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시킨다.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부교수

로마제국과 근동의 관계는 현존 사료가 주로 로마와 그리스 입장에서 기술된 것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근동지역에 대한 로마의 정확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근동의 여러 국가가 로마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질적 한계에 더하여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비문, 파피루스, 조각상, 동전과 같은 고고학적 유산과 문헌사료 또한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사료의 질량(質量)적 한계에 더하여 근동에 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서구의 시각에서 모호하게 정립되어 있는 ‘오리엔트’ 개념뿐만 아니라 그에 바탕을 둔 반(反)오리엔트적 경향에서 기인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관한 고대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요세푸스(Josephus), 스트라보(Strabo), 타키투스(Tacitus), 디오(Dio), 폴리비우스(Polybius), 유세비우스(Eusebius) 등은 자신들의 저작을 통해 그에 관한 부분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중 특히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Antiquitates Judaicae)』, 『유대전쟁사(Bellum Judaicum)』를 통해 유대역사에 관한 절대적 정보와 유대전쟁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트라보는 파르티아 제국을 포함한 근동지역의 여러 종속국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1)</sup>

한편, 동시대 학자들 또한 3세기 이전까지 로마의 제국주의 성격과 관련하여 근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로마의 정체가

1) F. Josephus, 박정수 역, 『유대전쟁사』, 서울: 나남, 2008; F. Josephus, 김지찬 역, 『유대고대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C. Tacitus, 박광순 역, 『타키투스의 연대기』, 서울: 범우사, 2005; Cassius Dio, *Historia Romana*; Polybius, *Historiae*;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Strabo, *Geographia* 등.

2) N. C. Debevoise, *A Political History of Partia*(Cicago, 1938);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BC-AD337*(Harvard UP, 1993); F. Millar, *The Roman Empire and its Neighbours*(Weidenfeld and Nicolson, 1970); B. Issac, *The Limits of Empire*(Oxford UP, 1992); P. Southern, *The Roman Army: A Social & Institution History*(Oxford UP, 2007); E. N. Luttwak,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Baltimore, 1976). 로마 제국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자로는 ‘방어적 제국주의’, ‘강요된 팽창’적 성격을 강조하는 김진경 외, 『서양고대사 연구』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충돌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로마의 팽창이 공세적이었는가 아니면 방어적이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연구는 주로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아프리카, 유대, 라인-다뉴브, 유프라테스 등 제국의 변경지역에서 일어났던 개별적 전쟁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직접 조우하기를 꺼려했던 파르티아 및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의 개별적 전쟁을 포함하여 소위 '종속왕국(client kingdom)'의 위치에 있던 여러 국가와의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통해 로마제국의 변경선 확보와 관련된 군사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방식은 장구했던 로마역사에 있어 한정된 시기와 장소라는 시공간적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군사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이 그러하듯이, 서양의 고대시대에 로마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별전쟁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변화과정을 추적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고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변화하면서 근동지역에 대한 군사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이 추진했던 근동정책의 경향성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동방의 여러 국가와 경험했던 크고 작은 분란과 전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로마제국에 과연 중앙 통제적인 종합적 제국방어전략이 존재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pp.355~395에 실린 신미숙의 글과 로마제국을 떠받치는 기저로서 로마군 병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배은숙, 『강대국의 비밀』(서울: 글항아리, 2008)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원수정 초기부터 네로 황제까지: BC31~AD68

### 1) 원수정 초기부터 티베리우스 황제까지: BC31~AD37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로마 공화정의 내전종식과 더불어 옥타비아누스의 일인 지배체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근동지역에 대한 로마의 군사적 지배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원전 63년 삼두정치의 한 축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 유대지역이 로마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로마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는 2차 삼두정치기 안토니우스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도 계속되어 카파도키아(Capadocia), 콤마게네(Commagene), 유대(Judaea) 등 주요 왕국들은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리아 북쪽 지역은 여전히 파르티아 제국의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이집트 남부 해안지역까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악티움 해전을 전후로 변화하였다. 해전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국가를 구한 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의 칭호를 부여하면서 ‘원로원과 로마인민(*S.P.Q.R=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원로원의 권위와 시민들의 위임을 바탕으로 그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원수정(*principatus*)’라는 정치체제<sup>3)</sup>를 확립하였다. 제국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변경선의 새로운 제국방어 군사전략은 속주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제까지 로마가 정복한 통치영역을 18개 원로원 속주와 10개 황제 속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어정책을 추구하였다. 근동지역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기본정책은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3)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의 성격에 대해서는 ①공화정의 연속성, ②일인 지배체제, ③양두체제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6), pp.1~7쪽.

이를 위해 아시아(Asia)와 비티니아(Bithynia)를 원로원 속주로 두었으며, 갈라티아(Galacia), 카파도키아 및 아르메니아(Armenia)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케 하였다. 이에 대해 키리키아(Cilicia)와 시리아(Syria)만을 파르티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 황제 속주로 두었을 뿐이다.

파르티아 제국은 사실상 근동지역의 패권국가로서 로마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영토 또한 유프라테스강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코 로마에 뒤지지 않았다. 이는 서방 속주와는 다른 그 어떤 통치기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동방에 '시리아' 황제 속주를 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제 속주는 로마의 정규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군사령관(*praefectus*)이 파견되었다. 시리아 속주 총독은 군사령관직을 겸하면서 유프라테스강 건너 파르티아와 완충지대에 위치한 여러 종속왕국들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를 위해 황제는 시리아에 4개 군단을 주둔시켰으며<sup>4)</sup>, 이를 토대로 인근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리아는 동방무역의 요충지였다. 그곳에서의 경작된 변경선 운용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대상로의 단절을 의미했다. 이에 아우구스투스는 개방적 형태의 변경선 설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바, 그것이 바로 시리아 속주 내에서의 가도정비였다. 이를 위해 황제는 시리아의 헬리오폴리스(Heliopolis) 주둔군을 기점으로 다른 군사적 요충지를 잇는 도로를 정비하였다. 안티오키아(Antiochia)~팔미라(Palmyra)~다마스쿠스(Damascus)~베리투스(Berytus)로 이어지는 가도를 통해 대상로 확보는 물론 군사적 변경선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팔미라와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지역의 독립왕국들과도 동맹

4) 키루스(Cyrrhus)에 X Fretensis, 라오디케아(Laodicea)에 VI Ferata, 안티오키아(Antioch)에 III Gallica, 라판나에(Raphaneae)에 VII Fulminata 군단이 배치되었다. 참고, 「원수정기 로마황제와 군대」(고려대 박사논문, 2005), 16~17쪽.

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베이루트 남쪽 페니키아 지방의 시돈(Sidon)과 티루스(Tyrus)도 반란을 빌미로 자유도시라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상도시로서 시리아 속주로 편입시켜 변경선에서의 각종 소요를 예방하고자 했다.<sup>5)</sup>

한편, 로마제국의 근동정책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위치에 있던 유대왕국에 대한 군사정책은 어떠한가? 로마제국에 있어 유대왕국은 시오노 나나미의 “유대왕국은 유대 세계다”는 표현처럼<sup>6)</sup> 시리아와 별개의 문제였다. 아우구스투스 이전 예루살렘을 정복한 폼페이우스는 시리아와 동일한 속주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화정 후반 2차 삼두정치기 유대의 헤롯 왕조는 이두마이아(Idumaea) 지역 출신의 안티파테르(Antipater) 이후에 성립되었다. 헤롯 이전 유대왕국의 하스몬 왕조는 히르카노스(Johannes Hyrkanus II) 2세와 아리스토틀로스(Aristobulos II) 2세의 내부적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종교적 측면까지 가미된 권력투쟁에서 안티파테르는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히르카노스 2세 편에 서도록 설득하여 로마의 후원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안티파테르 아들인 헤롯 대왕은 공화정 후반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유대왕에 오르게 된다. 이에 그가 죽는 기원전 4년까지 친(親)로마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왕이 된 이후에도 로마의 권력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경쟁에서 전자의 편에서 새로운 로마의 탄생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헤롯의 유대왕국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군사정책은 그 태생적 상황에 따라 시리아와 같은 속주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원수정 초기 로마제국은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과 남쪽의 아라비아 왕국에 대한 완충지역으로 유대왕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헤롯 대왕 역시 친(親)

5) E. N. Luttwak, *The Grand Strategy*, pp.179~182;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pp.38~39.

6)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6』, 한길사, 1997, 132쪽.

로마적 정책으로 화답하였다.<sup>7)</sup>

그렇다면 정작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 새로운 정체의 초대 황제로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처럼 파르티아 문제를 동방정책에 있어 핵심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황제는 파르티아와의 관계를 다른 속주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양국의 적대관계가 지속될 경우 야기될 경제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양국은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대상로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마스쿠스(Damascus), 팔미라(Palmyra), 페트라(Petra), 아파메아(Apamea),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 융성하는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에 대한 혜택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원수정 초기에 산적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들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이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의 와중에 있던 파르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수정 초기 아우구스투스는 동방지역을 비롯한 제국의 안정된 변경선 방어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제도도 새롭게 개혁하였다. 개혁의 기본방침은 외부세계로의 정복이 아닌 방어에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상비군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공화정 후반기 최대 60여개 군단으로 증가되었던 군단수를 28개로 축소하였으며, 상비군으로서 병사들의 봉급지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의 아이라리움(*aerarium*) 이외에 피스쿠스(*fiscus*)라는 새로운 목적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sup>8)</sup> 원수정 초기 로마제국은 시리아의 4개 군단을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남부지역의 해안선과 산악지역, 파르티아와의 변경선 등 동방의 핵심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수정 초기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 후반기 극도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체를 수립하여 여러 정책을 표방하였던바, 특히 제국의 행정체계 개선과 속주들의 내적 안정은 물론 제국의 변경선을

7) F. Millar, op. cit., p.39.

8) 졸고, 앞의 책, 155~159쪽.

확정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중앙 통제적인 군사전략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 2) 가이우스 치세부터 유대전쟁까지: AD37~68

서기 37년 3월 가이우스(Gaius Jul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황제 등극은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던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이우스는 황제가 총독을 직접 임명하는 황제 속주보다는 종속왕국의 국왕을 통해 지배하기를 선호하였다. 가이우스 치세 이후 유대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의 개인적 성향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가이우스 즉위 초기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근동지역에서 정치, 종교, 인종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양쪽의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뿐만 아니라 가이우스의 신상을 들고 회당에 난입하여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유대교를 비난하였다. 사태는 이를 수습해야 했던 이집트 군사령관 플라쿠스(Flaccus)의 미온적인 조치로 유대인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의 입장에서 신격화를 자처하고 있는 가이우스 황제의 행동을 거슬리며 그리스인들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9)</sup>

유대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로(Philo of Alexandria)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로마로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이우스 황제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다. 황제는 오히려 그리스 사절단이 도착한 이후 양측을 동시에 만나고자 했다. 유대 및 그리스 사절단과 가이우스가 황제저택에서 만났다. 회담의 결과는 처음부터 유일신을 주장하는 유대측의

9) Josephus, 김지찬 역, 『유대교대사』, 542~548쪽.; F. Millar, op. cit., pp.187~188.

의도대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둔 듯하다. 가이우스 황제가 임명한 이집트 총독으로 하여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 폭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유대인에 관한 황제의 기인한 행동은 40년 갈리아 및 브리타니아 순행 이후에 다시금 발생하였다. 황제의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식 과정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이우스 황제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등 신격화하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제단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졌고, 이에 황제는 시리아 총독인 페트로니우스(Petronius)에게 예루살렘 신전 안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동방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격렬히 반대했으며 폭동의 기미까지 확대되었다. 황제의 명령 이행을 주저하던 페트로니우스는 자결하라는 황제의 서신을 받았지만 때는 이미 황제가 암살된 이후의 일이었다. 이로서 사치와 압제 그리고 과대망상으로 얼룩진 그의 짧은 정치경력을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sup>10)</sup>

가이우스의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도발적 행위는 이전까지 우호적으로 유지되던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비단 유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도 발행하였다. 로마제국은 파르티아에 대해 로마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의 직접지배를 용인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티베리우스가 속주로 병합한 콤마게네에 대해서도 안티오쿠스에게 돌려주었으며, 헤롯 아그리파에게 과거 조부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왕국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맡기기도 했다.<sup>11)</sup> 이처럼 가이우스는 속주 국왕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간접지배를 택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변덕스럽고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가이우스는 유대문제를 이후에 들어서는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 Germanicus) 황제에게 미완의 숙제로

10) F. Millar, *op. cit.*, pp.58~59.

11)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635~636쪽.

남겨 놓았다. 황제는 유대인 문제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로 분리하여 대처하였다. 먼저 후자의 경우 그는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공존을 주장하며 양자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동방의 변경지역에서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전자의 경우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라 가이우스와도 친분을 쌓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였다.<sup>12)</sup> 하지만 그는 로마제국에 지배받는 유대왕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금지되어 있던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근의 로마 종속왕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로마제국은 파르티아 제국과의 완충지역으로 종속왕국을 유지하며 그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파가 재위 3년 만에 죽음으로써 다시금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유대와의 관계는 66년 유대전쟁 발발 이전까지 불안한 평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제국방어 군사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동방문제는 언제나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파르티아와 관련되어 있는 아르메니아왕국, 그리고 유대문제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했다. 두 문제 모두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으며,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가의 역대 황제들이 모두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였다. 네로 황제에 이르러 이러한 제국방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54년 네로 황제 초기 로마제국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파르티아의 공세적인 국왕 볼로게세스 1세(Vologeses I)가 예전의 역사를 들먹이며 아르메니아를 침입하여 형제인 티리다테스 4세(Tridates IV)를 왕으로 추대하여 친(親)파르티아 국가로 만들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신속하게 저지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코르블로(Cn Domitius Corbulo)를 급파하였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12) F. Millar, op. cit., pp.37~38, 187~188.

카파도키아 및 갈라키아의 총독일 뿐이었다. 당시 근동지역의 모든 지휘권은 시리아 총독에게 있었으며, 그가 인근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리아 총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지휘체계는 코르볼로와 시리아 총독인 콰드라투스(Quadratus)로 양분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라 즉시 전쟁에 투입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sup>13)</sup>

이에 코르볼로는 실제 전투 운용이 가능한 병력이 준비될 때까지 상황을 관망하였다. 양국이 모두가 정치 및 군사적 이유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로마의 입장에서 황제와 코르볼로 사이에 전략의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고, 이에 3년이 지난 58년에 이르러서야 아르메니아로 진격할 수 있었다. 파르티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 몇 번의 소규모 전투가 치러진 이후 파르티아가 내세웠던 아르메니아 국왕 티리다테스가 아르메니아 수도인 아르탁사타(Artacsata)를 떠났다. 코르볼로는 별다른 군사적 손실 없이 소규모 전투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친(親)로마 성향의 티그라네스 5세(Tigranes V)를 아르메니아 왕으로 추대하였다. 파르티아와 관련된 변경선 전투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얻은 셈이었다.

파르티아와의 본격적인 전쟁은 로마가 내세웠던 아르메니아 국왕 티그라네스 5세의 메디아(Media) 침공이 그 원인이 되었다. 메디아는 파르티아의 전통적 동맹국으로 아르메니아의 침공을 묵과할 수 없었다. 62년 파르티아의 볼로게세스는 네로 황제가 코르볼로를 위해 파견한 모이시아 및 마케도니아 군단을 붕괴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다. 이에 코르볼로는 시리아 총독으로서 파르티아 전쟁 수행을 위한 전권을 수임 받아 파르티아와의 일전을 준비하였다. 코르볼로는 제3 갈리카(III Gallica), 제5 마케도니아(V Macedonica), 제6 페라타(VI Ferrata),

13) F. Millar, *op. cit.*, pp.65~66.

제15 아폴리나리스(XV Apollinaris) 군단을 포함하여 발칸 및 이집트에서 파견된 기병과 보조군을 이끌고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유프라테스 변경선을 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대규모 군사적 시위가 진행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모색되고 있었다. 63년 전략에 능했던 코르볼로는 교섭을 통해 파르티아의 블로게세스에 대해 아르메니아에서의 로마의 수위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파르티아를 비롯한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다.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곳에 대한 로마의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네로는 파르티아에 대한 점진적 포위 정책을 채택하였다. 남서부의 아덴지역을 로마의 군사적 강력한 거점으로 삼았으며, 잔지바르(Zanzibar)를 점령하여 해군 기지로 구축하였고, 흑해연안에 해군 순찰대의 창설 및 카스피 해안 북부와 동부의 원정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4)</sup>

한편, 66년 유대지역에서는 그동안 잠복되어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였다. 유대전쟁은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이 어떠한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었다. 유대전쟁의 원인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sup>15)</sup>, 이에 대한 직접적 사료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대전쟁의 깊은 원인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내부적 분열, 로마황제의 문화정책, 로마 총독의 재정정책 등 로마제국 안에서의 유대의 특수성을 들고

14) Josephus, 박정수 역, 앞의 책, II. 1-4, 175~187쪽.; F. Millar, op. cit., pp.67~68.

15) M. Goodman, "The First Jewish Revolt: Social Conflict and the Problem of Debt", *Journal of Judaic Studies* 33, 1982.; L. Francis, "The Anti-Roman Revolts of the Jews and the Galile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Vol. 68, no 2(Oct., 1977); Z. Solomon, "The Sicarii and Masada", *The Jewish Quarterly Review*, Vol. 55, no 4(Apr., 1967); ----, "Who were the Galile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Vol. 64, no 3(Jan., 1974); 박양규, 「제1차 유대전쟁(AD66-70)의 원인연구」(고려대 석사논문, 2008); 김시열, 「제1차 유대전쟁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웨스트민스터 신학대 석사논문, 2002); 이주현, 「헤롯과 유대교 분파-유대전쟁에 관한 연구」(광신대 석사논문, 2006) 등.

있다.<sup>16)</sup> 정치,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깊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카이사레아(Caesarea)시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항의하였고 사태는 점점 험악해졌다. 이에 대한 로마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시리아 총독 케스투스 갈루스(Cestus Gallus)에게 휘하 군단을 동원하여 진압케 하였다. 그는 카이사레아, 안티파트리스(Antipatris), 리다(Lydda)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반란은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는 촉진제가 되었다.<sup>17)</sup> 이에 대해 네로황제는 시리아 총독 리키니우스 무키아누스(Licinius Mucianus)와 브리타니아에서 맹위를 떨친 베스파시아누스(Flavius Vespasianus)를 전쟁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67년 6월까지 시리아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원정군이 재정비되었다. 원정군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제15 아폴리나리스(XV Apollinaris), 제5 마케도니아(V Macedonia), 제10 프레틴시스(X Fretensis) 등 3개 군단, 무키아누스의 3개 시리아 주둔군, 콤마게네의 안티오쿠스 4세, 이멧사의 소에무스 등의 보병 2,000명, 기병 1,000명, 아라비아 말쿠스의이 보병 5,000명, 기병 1,000명 등 총병력이 대략 60,000명에 이르렀다.<sup>18)</sup>

한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로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적의 침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 비해 토지가 비옥했으며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여러 도시가 세워졌고 주민수도 최소한 15,0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을 모아 적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sup>19)</sup> 그렇지만 로마제국 군대는 67년 갈릴리 지역을 거쳐 68년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대의 거의 모든

16) Josephus, 김지찬 역, 앞의 책, 623~645쪽.

17) F. Millar, *Top. cit.*, pp.70~71.

18) F. Millar, *ibid.*, p.72.

19) Josephus, 박정수 역, 앞의 책, III. 3, 308~309쪽.

지역을 정복하였다. 9월 네로 황제의 죽음에 따라 예루살렘 정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전투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최후로 예루살렘과 헤롯대왕이 축조한 헤로디움(Herodium), 마사다(Masada), 마흐레루스(Machaerus) 3개 요새만이 최후의 저항지로 남게 되었다.<sup>20)</sup>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집트에서 황제의 선서가 이루어졌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추대는 동방지역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단계의 진일보를 의미했다. 카에사레아(Caesarea)에서 자신의 군단에 의해 먼저 황제로 추대되었고, 이에 따라 제국에서 안티오크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베르리투스(Berytus)에서 시리아 총독인 무키아누스의 충성도 받았다.<sup>21)</sup>

이로써 로마제국은 안정을 되찾았고, 남은 과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있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의 아들 티투스(Titus)에게 맡겨졌다.<sup>22)</sup>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병력규모는 로마제국 전체 병력의 1/7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으며, 70년 4월~11월까지 동원되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제국의 속주 혹은 종속왕국 상태에 있던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서 제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로마제국에 도전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함락된 예루살렘에는 제10 프레틴시스(X Fretensis) 군단이 약간의 기병대와 보병대와 함께 거의 2세기 동안 주둔해 있었으며, 총독은 법무관을 지낸 원로원 계층이 임명되었다. 속주총독 및 군단사령관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예루살렘의 위상은 로마제국의 근동지경의 변경선 방어와 관련되어 제국의 군대주둔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군대를 주둔시킬 것인가의 변수는 지역적인 반란의 유무였다.

20)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II. 3, 309~310쪽.

21)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V. 6, 96쪽.

22)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V. 6, 101~102쪽.

23)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VII. 1, 251~252쪽.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는 최소한 점령군으로서 군대의 주둔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 3.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까지: AD69~117

#### 1) 베스파시아누스의 새로운 근동정책

유대전쟁을 비롯한 동방지역에서 여러 경험을 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임자들의 수동적 방어 정책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변경선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동방지역의 변경선은 제국의 서방 및 북방지역과는 달리 자연적인 방어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 흑해연안까지 사막지역으로 이어지는 변경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르티아와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다. 아르메니아에 친(親)로마적 성격의 인물을 국왕에 앉혀 주변의 여러 종속왕국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적대행위 방지 및 파르티아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황제의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제우그마(Zeugma), 사모사타(Samosata), 멜리테네(Melitene)에 등 유프라테스 중상류 개방된 지역의 변경선을 방어할만한 로마군단이나 파견부대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던 시리아 주둔군 또한 기동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러한 동방지역에서의 군사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군사적 동원 외에 외교수단을 활용하였다. 당시 동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파르티아와의 상대적인 평화를 유지코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황제는 동방지역의 속주체제 및 군단 주둔지를 변경하였다. 전쟁을 통해 정복된 유대에는 법무관급 원로원 출신 이상의 군사령관이 통치하는 속주가 되었다. 콤마게네(Commagene)는 종속왕국(dependent kingdom)으로서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고, 오론텐스(Orontes) 상류와 초원지역으로 확장한 에멧사의 소헤무스(Sohaemus of Emesa) 왕국과 팔미라 또한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다. 또한 카파도키아(Cappadocia)가 동방의 황제속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12 풀미나타(XII Fulminata) 군단을 멜리테네(Melitene)에 그리고 새롭게 창설된 제16 플라비아(XVI Flavia) 군단을 사탈라(Satala)에 주둔시켰다.<sup>24)</sup> 이러한 두 군단을 기반으로 유프라테스강을 둘러싼 변경선을 상류지역에서 콤마게네를 거쳐 제우그마까지 확대하였다. 요컨대 사탈라(Satala)~멜리테네(Melitene)~사모사타(Samosata)~제우그마(Zeugma)로 이어지는 변경 지역에 제국의 주요 군사주둔지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군단 주둔의 재조정은 군사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착 콤마게네는 73년 이전까지 여전히 종속왕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의 기본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종속왕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전진기지(bridgehead)를 통한 지역별 통합형태의 방어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유프라테스강 양쪽으로 오른쪽에는 로마의 종속왕국으로 콤마게네(Commagene)와 그의 수도 사모사타(Samosata), 다른 쪽에는 여전히 파르티아 통제 하에 있던 오스로에네(Osrhoene)와 그의 수도 에멧사(Edesa)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73년 이후 오른편의 제우그마에서 사모사타 사이의 영토가 로마제국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북쪽지역과 달리 유프라테스 남부지역에는 로마의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5년 팔미라 동북쪽으로 27km 떨어진 아르악(Arak)에 시리아 총독 트라야누스(Ulpianus Trajanus)가

24) F. Millar, op. cit., pp.80~81.

세운 군사 이정표는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25)</sup> 이를 기점으로 가도는 오레스사(Oresa)~레사파(Resafa)~수라(Sura)~칼리니쿰의 발릭(Balikh)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초원지대의 이러한 가도가 오늘날의 국경선과 같은 변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2) 트라야누스 황제의 팽창주의: 1차 대(對)파르티아 전쟁(113~117)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였던 트라야누스(Marcus Ulpius Traianus)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휘하에서 유대전쟁에 참여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동방지역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sup>26)</sup> 로마제국의 주요 방어선이 라인-다뉴브 강을 경계로 한 북방한계선이었지만 동방의 시리아 속주 또한 파르티아 제국과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제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경선이었다. 트라야누스는 히스파니아, 게르마니아 지역의 사령관직을 수행하면서 황제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암살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황제에 오른 네르바(Nerva)는 이미 70을 넘기고 있었다. 네로 암살 이후 내전을 경험했던 그는 후계를 신속히 지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고지 게르마니아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트라야누스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네르바 생존 당시 공동 황제로서 트라야누스는 게르마니아와 다뉴브 강을 잇는 ‘게르마니아 방벽’을 통한 제국방어 체제를 구축한 경험을 통해 라인강의 중류와 하류에 이르는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네르바의 급속한 사망으로 좌절되었고, 이는 이후 진행될 다키아와의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01년부터 106년까지 진행되었던 대(對)다키아(Dacia) 전쟁은 로마제국 황제의 입장에서

25) G. W. Bowersock, "Syria under Vespasian", *JRS* 63, p.133.

26) 유대전쟁 시 부친은 제10(X Fretensis)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685쪽.

제국의 지역방어가 얼마나 주요 관심사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로마 황제가 직접 지휘했던 전략상 가장 큰 규모의 원정중의 하나였다. 다뉴브강을 따라 주둔했던 7개 군단, 라인강 주둔군 2개 군단 등 군단 병 8만 명과 보조군 7만 명을 합하여 총 15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다키아 국왕 데케발루스(Decebalus)의 완강한 저항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복은 쉽지 않았다. 일정한 휴전기를 거치며 전력을 재정비한 황제는 다시금 침공하여 데케발루스의 자살을 이르게 하였고 다키아를 속주로 병합하였음은 물론 그의 수도 사르미제게투스사(Sarmizegethusa)를 로마의 식민지(Ulpia Traiana)로 만들었다.<sup>27)</sup> 이로서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거리였던 라인-다뉴브 변경선을 안정화시켰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동방지역이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와의 전쟁처럼 대(對)파르티아 전쟁을 구상하였다. 로마와 파르티아와의 관계는 시오노 나나미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sup>28)</sup> 서방의 그리스 로마 문명과 동방의 페르시아 문명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다키아 전쟁이 끝난 7년 후 트라야누스는 다시금 파르티아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유대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파르티아가 로마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은 로마에 대해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르티아에 대해 트라야누스 황제가 전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은 로마가 얼마나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역으로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제국의 변경선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자 했던가를 가늠케 한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파르티아 전쟁은 아르메니아 왕국과 관련되어 있었다. 파르티아의 왕 파코루스(Pacorus)가 친(親)로마적 성향을 보이고 있던 아르메니아 왕 트리다데스(Tridades)가 죽은 이후 자신의 아들인 악시달레스(Acidales)를 아르메니아 왕위에 앉혔던 것이다. 이후

27) F. Millar, op. cit., pp.272~273.

28)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9』, 190쪽.

110년 파코루스가 죽은 다음 파르티아 왕위가 그의 동생 코스로이스(Chosroes)로 이어졌는데, 그가 당시 아르메니아 왕으로 있던 악시달레스를 폐위시키고 동생인 파르타마실리스(Partamasilis)를 왕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파르티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로마에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sup>29)</sup> 이에 대한 트라야누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있던 대(對)파르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13년 가을 트라야누스 황제는 카파도키아 2개 군단, 시리아 3개 군단, 유대 1개 군단, 아라비아 1개 군단, 라인 군단 1개, 다뉴브 군단 2개 등 총 10개 군단의 약 5만 5천여 명과 이와 거의 동일한 수의 보조군 등을 합쳐 총 1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원정 중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아피아 가도와 트라야나 가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114년 봄 트라야누스는 원정의 전초기지인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인 멜리테네(Melitene)로 진군하였고, 이후 더욱 북상하여 사탈라(Satala)에 이르러 다뉴브 군단과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트라야누스 황제는 아르메니아와의 접경 도시인 에레게니아(Eregeia)로의 진군을 명하였고, 그 결과 카파도키아와 아르메니아를 통합하여 속주화하였으며 총독으로 콘술을 지낸 세베루스(Catilius Severus)를 임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전쟁에 동원된 로마군은 아르메니아 전역으로 흩어져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복을 개시하였다. 주요 도시인 니시비스(Nisibis), 메소포타미아 북부 여러 지역과 티그리스 강을 넘어 아르탁사타(Artacsata)를 경유하여 카스피해까지 이르렀다. 이후 116년 티그리스 강을 따라 남하하여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인 체시폰(Ctesiphon)을 향하여 큰 저항 없이 함락하여 로마제국의 황제로 처음으로 그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황제로 기록되었다. 이에 그는 북쪽의 카스피해를

29) F. Millar, op. cit., pp.90~93.

기점으로 티그리스 강을 따라 체시폰을 잇고 유프라테스 하류를 따라 홍해로 이어지는 명목상의 변경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와 같은 중앙 집권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방 귀족들의 연합 형태로 왕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지방 분권적 국가체제였던 것이다. 이에 트라야누스 황제가 안티오키아로 귀환하였을 때 정복되어 있던 지방 귀족들의 반란으로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후 또 다른 원정의 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처럼 로마제국의 근동지역에 대한 정복활동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그 면적은 대략 BC 31년 악티움 해전 당시에 비해 두 배에 이르렀다. 타우루스 산맥에서 출발하여 남쪽의 헤자즈(Hedjaz)에 이르는 산악과 초원의 경작 가능한 모든 지역, 그리고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아락(Arak)에 이르는 자연적 장벽을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트라야누스 통치는 로마제국의 영토적 팽창에 있어 절정에 이르렀다.

대(對)파르티아 전쟁은 로마제국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는 로마제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오리엔트 세계에 대한 팽창적인 정복의 일환으로, 근동지역에서 종속왕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정립코자 하는 징표였다. 원정을 위한 병력이 소집되었다. 제4 스키타아(IV Scythia) 군단은 제우그마(Zeugma)에서, 제16 플라비아 피르마(XVI Flavia Firma) 군단은 사탈라에서, 제VI 페라타(Ferrata) 군단은 사모사타에서, 그리고 제X 프레틴시스(Fretensis) 군단은 예루살렘에서 이동하였다. 더욱이 모이시아 주둔군 제11 클라우디아(XI Claudia) 군단이 원정군에 동참하였으며, 해군은 시리아 함대뿐만 아니라 미세눔, 라벤나 함대까지도 동원되었다. 원정의 경로는 육로인 경우 발칸반도-소아시아-양카라-킬리키아-시리아 관문을 통과하여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테시폰으로 향해 나갔으며, 해로인 경우 소아시아 속주에서 출발하여 리키아를 거쳐 셀레우키아로 향했다. 해군의 도움을 받아 로마군단은 유프라테스 강을 도하해서도 계속하여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다.<sup>30)</sup> 전쟁의 결과 확대된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제2의 수도로서 안티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황제는 얼마간 그곳에 머물다가 소아시아를 거쳐 양카라와 발칸반도를 통해 로마로의 귀향길에 올랐다.

#### 4. 하드리아누스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 AD118~200

##### 1)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동방지역 순회 및 유대반란(132~135)

트라야누스 황제가 귀향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동방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반란은 그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다. 3년에 걸친 원정은 60세를 넘긴 황제에게 무리한 일이었고 로마로 귀환하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 이 소식이 안티오크에 있던 하드리아누스(Imperator Caesar Trajanus Hadrianus Augustus)에게 전해졌다. 시리아 주둔군은 그를 황제로 선포하였고, 이어 원로원의 공식적인 선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과제는 만만치 않았다. 유대반란, 브리타니아 원주민 반란, 마우리타니아족 반란, 사르마티아족 반란 등 서방 및 동방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의 곳곳에서 발생한 반란진압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군사령관 마르키우스 투르보(Marcus Turbo)를 중용하였다. 그는 먼저 현재 진행형이었던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수습해야만 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야누스의 확장정책이 현시점에서 지속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파르티아 전쟁 이전의 상태로 사태를 매듭짓고자 했다. 티그리스강 동부 지역을 포기하고 아르메니아를 다시금 로마의 종속왕국으로 되돌렸던 것이다.

30) F. Millar, *ibid.*, pp.101~103.

그는 황제 재위기간 2/3 이상을 제국을 순회하는데 할애하였다. 그는 제국의 안전보장과 안정된 속주통치를 위해 변경지역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121년 이후 그는 갈리아, 라인지방,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시칠리아, 그리스를 순회하였고, 126년 카르타고를 거쳐 북아프리카 지역, 128년 이후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에페소스, 페르가몬 등 동방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였다. 순회하는 동안 불안정한 변경선 회복, 각종 평화조약, 신전건립, 새로운 식민지 건설 등 제국을 위한 황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제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순행 그 자체가 그의 독특한 통치행위이자 수단이었었던 것이다.

순행의 막바지에 그는 바르 코크바(Bar Kochba)와 벤 코시바(Ben Kosiba)의 지휘 하에 유대에서 반란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로마군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은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다. ① 유대인들의 자유와 구원에 대한 열망 속에서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보았다는 주장, ② 로마점령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로마 식민지인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를 세우고 유대인 성전에 주피터(Jupiter) 신전을 세우도록 명한 하드리아누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③ 로마의 식민도시 건설과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시킨 하드리아누스의 친(親)그리스 정책, ④ 퇴역병들의 거주지와 전통적 교통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에 로마 식민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등 다양하게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31)</sup>

132년 바르 코크바(Bar Kochba) 반란소식을 접한 황제는 급히 시리아로 이동하여 브리타니아, 이집트 등 인근의 속주 주둔군을 소집

31) H. Mantel, "The Causes of the Bar Kochbar Revolt",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Vol 58, No. 3(Jan., 1968), pp.226~230; B. Issac, *The Limits of Empire*(Oxford, 1992), pp.104~106; 반기현, 「하드리아누스의 유대정책과 바르 코크바 전쟁의 원인」, 2010, 50~51Whr.

하여 진압군을 편성하였다. 개방성이라는 유대지역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반란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 율리우스 세베루스(Julius Severus)를 브리타니아에서 급히 소환하여 사령관의 임무를 맡겼다. 유대지역의 제10 프레틴시스(X Fretensis)와 제6 페라타(VI Ferrata), 이집트의 제22 다이오타리아나(XXII Deiotariana), 카파도키아의 제12 풀미나타(XII Fulminata), 시리아 총독인 마르셀루스(Marcellus) 휘하의 제3 갈리카(III Gallica), 제5 스키티카(V Scythica), 제3 키레나이카(III Cyrenaica) 군단 등 총 7개 정규군단과 비슷한 규모의 보조군이 투입되었으며, 그밖에 다키아, 라인-다뉴브 변경선과 이집트 등에서 크고 작은 보조군과 혼합군을 합쳐 전쟁에 투입된 병력은 총 10만여 명에 이르렀다.<sup>32)</sup>

전쟁의 진행과정은 소규모 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서서히 몰아갔다. 느리지만 철저하게 적으로부터의 위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수만이 남아 최후의 결전지역으로 나갔다. 최후의 결전은 베타(Bethar)에서 있었고, 반란의 주모자인 바르 코크바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전쟁의 결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팔려나갔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된 것이다. 속주의 명칭 또한 유대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Syria Palaestina)로 변경되었고 로마 식민지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가 건설되었다.

이후 황제는 유대지역을 포함한 근동지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군사 요새지마다 군단을 주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방지역에서 로마제국의 변경정책은 거의 완성되었다. 즉 유프라테스 북쪽 지역을 경계로 사모사타(Samosata)와 제우그마(Zeugma)에 제16 플라비아 피르마 군단(XVI Flavia Firma)과 제4 스키티카(IV Scythica) 군단을,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라판네아에 제3 갈리카(III Gallica)

32) F. Millar, op. cit., pp.106~108.

군단을, 예젤(Jezeel)에 제10 프렌텐시스(X Fretensis)을, 카파르코티나(Caparcotna)에 제6 페라타(IV Ferata) 군단을 그리고 아라비아의 보스트라에 제3 키레나이카(III Cyrenaica) 군단을 배치하였다.<sup>33)</sup> 동방지역에서 이러한 로마 주둔군의 재배치는 로마제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황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중앙 집권적 변경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동방지역에서의 확고한 변경선을 다시금 확인시켜줌으로써 제국의 안정된 방어 전략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2차 파르티아 전쟁(161~165)

로마제국의 상대적 평화기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us Pius, 138~161)시대를 지나 철인정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Marcus Aurelius, 161~180)는 후대의 역사적 평가와는 달리 제국에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었다. 전임자와는 달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강력한 변경정책을 추구하고자 황제는 재위 초기부터 위기를 맞게 된다. 로마에 불어 닥친 기근과 홍수, 지진, 갈라티아의 가뭄, 브리타니아 반란, 라인 변경선의 위협, 동방지역에서의 전운 등 제국의 서방과 동방을 막론하고 총체적인 위기가 불어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파르티아의 위협에 맞서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Lucius Verus)를 파견하였고 그 자신은 서방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34)</sup> 제국의 국방과 행정의 부담을 공동 황제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르 코크바 반란 종식 이후 동방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구축된 방어선을 통해 불안정했지만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파르티아의 볼로게세스 4세가 들어섬에 따라 로마제국과 새로운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33) F. Millar, *ibid.*, *Near East*, p.108.

34) F. Millar, *ibid.*, pp.111~112.

분쟁의 발단은 파르티아가 아르메니아를 재차 침범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로마의 전통적인 정책은 동맹국으로 친(親)로마적 인물을 왕위에 앉혀 파르티아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두 제국은 이전의 전쟁 경험도 있고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상태가 깨진 것이다. 아르메니아로 진군한 파르티아는 수도인 아르탁사타(Artacsata)를 침공하여 친로마파 왕을 몰아내고 반로마파 파코루스(Pacorus)를 왕위에 앉혔다. 근동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시리아 총독 코르넬리우스(Cornelius)는 카파도키아 총독인 세다티우스 세베리아누스(Sedatius Severianus)에게 파르티아 침입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지만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실패의 책임에 따른 그의 비극적인 자살 소식을 접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은 황제의 직접 출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자신이 철인 황제임을 자처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제국방어라는 임페라토르의 임무를 충실히 받아들인 것이다. 63년 봄 아르메니아에 대한 로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를 지휘했던 사령관은 브리타니아에서 긴급 투입된 스타티우스 프리스쿠스(Stadius Priscus)로, 그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전력을 재정비하였다. 패배한 전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들이 등장했다. 제1 미네르바 군단의 클라우디우스 프론토(Claudius Fronto), 제10 게미나 군단의 게미니우스 마르키아누스(Geminus Marcianus), 제3 갈리카 군단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Abidius Cassius)가 바로 그들이다. 전쟁의 진행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161~63년)는 아르메니아에 침공한 파르티아군을 몰아내는 과정이며, 제2기(163~65년)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파르티아 진영으로 반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제3기(165~66년)는 제2기 승리를 발판으로 티그리스 강을 건너 파르티아 내부 깊숙이 진군하여 전쟁을 종결하는 과정이었다. 로마군은 각 단계별로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고, 에뎃사, 니시비스, 세레우키아 등 파르티아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여 그들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제3기의 전쟁은 단순히 침략당한 영토의 회복이 아닌 파르티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 수도인 크테시폰을 비롯한 파르티아 내부까지 깊게 침투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로마의 행위는 동방지역에서의 로마제국의 위상을 그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써 로마제국은 파르티아 전쟁을 통해 동방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동방의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친파르티아가 아닌 친로마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비록 전쟁이후 군사력의 배치 과정에서 이전의 트라야누스 황제와 같은 뚜렷한 변경선의 재설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로마제국은 동방지역에서 그들의 헤게모니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제2차 파르티아 전쟁은 실지회복 및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우위의 재확인이라는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입장에서 중앙통제적인 변경선 방어정책의 일환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이기도 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 전쟁은 이후 동방지역에서 역사적 현실로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흥기하는 원인(遠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3)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군대개혁과 3차 파르티아 전쟁(197~199)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의 황제 등극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친위대에 의해 추대된 디디우스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는 혼란스런 로마제국의 정국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연로하였다. 근위대에 의한 제위의 판매라는 모욕 속에서 로마 시민과 병사들은 시리아 총독 페스켄니우스 니게르(Pescennius Niger)를 황제로 추대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브리타니아에서는 클로디우스 알비누스(Clodius Albinus)가, 다뉴브 변경선의 판노니아

총독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로 추대되었다.<sup>35)</sup> 가장 먼저 로마에 입성한 세베루스는 기존의 이탈리아 출신 근위대를 해산하고 휘하 병사들로 새로운 근위대를 창설하여 이를 자신의 정치적 배경으로 삼았다.

세베루스 황제 치세가 193년부터 시작되나 실질적인 통치의 시작은 197년 이후의 일이었다. 제위 초기 4년 동안은 황제로 추대된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으로 격심한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먼저 페르케니우스 니게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알비누스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그에게 상당한 권력을 양보해야만 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거점으로 격렬히 저항하던 니게르는 세베루스의 신속한 원정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안티오크가 함락되었다. 이로써 니게르가 제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알비누스였다. 그는 세베루스 못지않은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베루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르티아왕 볼로게세스 4세와의 전쟁 중에 원로원에 자신을 황제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세베루스로 하여금 동방원정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그와 제위를 둘러싼 일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케 하였다. 알비누스는 갈리아의 루그두눔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브리타니아, 라인군단 등 총 8개 군단을 동원하였다. 이에 맞서 세베루스는 자신을 따르는 다뉴브 군단을 위시한 총 12개 군단을 동원하여 알비누스의 본거지였던 루그두눔을 점령하였으며, 그를 지지하던 속주와 원로원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이후 권력의 원천을 원로원이 아닌 군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황제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대를 위시한 각종 개혁을 착수하였다.

그는 첫째, 원로원의 위상 하락과 그를 대신할 만한 군대에 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소위 ‘군사전제정(military monarchy)’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군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제일 먼저 근위대를 개혁하였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노리쿰 지역에서

35) 당시 니게르는 8개 군단, 알비누스는 7개 군단, 세베루스는 12개 군단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766~768쪽.

충원되는 근위대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다뉴브 군단에서 충원하였다. 그 역할도 단순히 황제의 측근부대 기능뿐만 아니라 중앙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로마의 제국방어 전략의 일대 전환을 꾀하였다. 둘째, 병사들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음주와 혼인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의 사고 및 클럽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셋째, 군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원로원 출신 지휘관들을 기사출신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자신의 정치수단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전역 후 병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병사들의 봉급인상은 물론 퇴직금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개혁 조치를 통해 세베루스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sup>36)</sup>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요 관심지역인 동방에서의 황제의 군사정책은 어떠했을까?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 그는 제국주의적 중앙통제의 강력한 변경선 유지정책을 지향했던 이전 황제들의 노선을 따랐다. 이를 위해 원수정 이후 지속되었던 파르티아와의 전쟁 또한 재개하였다. 197년 세베루스 황제의 동방원정은 파르티아의 잠재적인 침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파르티아가 로마제국에 대해 또 다른 원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는지 제국 내에는 예방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원정에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예상된 것처럼 큰 어려움 없이 유프라테스강을 넘어 파르티아 수도인 체시폰까지 진격하였다. 파르티아는 그들을 맞아 대적할만한 그 어떤 전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원정은 단순히 세베루스 황제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황제의 입장에서 보다 튼실한 현실적인 변경선

36) 참고, 앞의 책, 96~102쪽.

유지를 통한 중앙통제적 제국방어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황제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황제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성공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했지만, 3세기 이후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는 이민족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방지역에서 전통적 강자였던 파르티아에 대한 로마의 일방적 승리는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왕조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제국에 있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을 의미했다.

## 5. 맺음말

로마와 근동지역 국가와의 최초 조우는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마는 기원전 196년 시리아 셀류쿠스 왕실의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을 통해 근동지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 왕조가 로마제국에 합병됨으로서 로마의 영향 하에 들어왔다. 이후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시기에 점진적으로 근동과의 관계가 진전되어 서방의 변경선과 유사한 형태의 변경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근동지역에는 로마제국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소유한 파르티아 제국과 종교적, 인종적 독특성을 지닌 유대민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팽창기 로마제국과의 크고 작은 분열과 전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로마로 하여금 서방과는 또 다른 정치군사적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군대 운용방식과 군단배치 상황을 들어 수동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제국의 동방 진출은 대부분 능동적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전쟁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확장할 경우, 로마제국에 반란을 꾀한 유대민족 토벌 시, 그들은 인접한

지역의 주둔군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서방의 군단마저 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보였다. 전쟁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승리를 통해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군사적 행위는 언제나 적극적이었고, 공세적이었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기 황제에 따라 간헐적으로 종속왕국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를 이은 플라비우스 왕조마저 중앙집중적 형태의 변경선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동방지역에서 로마제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전쟁은 동시대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로마는 원수정 성립 이후 끊임 없이 동방지역에서 중앙 통제적이며 튼실한 변경선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2세기 후반에는 파르티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 체제가 사라지고, 그 지역의 신민들이 로마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속주에서의 원활한 군사적 행위 및 상업 활동을 위해 새로운 가도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이는 동방지역이 개방적 초원지대로 게르마니아 방벽과 같은 유형적 변경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신할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3세기 이전까지 동방지역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러한 개별적 사건과 전쟁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일반적 경향성을 보고자 했다.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이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 하에서 발생하듯이, 여러 황제들이 선택한 군사정책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왕조의 교체와 황제의 등극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황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것은 바로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이후 소위 ‘위기의 3세기’를

맞이하는 로마제국의 운명과도 무관할 수 없다. 위기의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은 최소한 동방과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했던바, 이러한 경향은 황제의 개인적 관심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로마제국, 근동지역, 군사정책, 원수정, 유대전쟁, 제국주의, 파르티아 전쟁,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트라야누스

<ABSTRACT>

## The Military Policy of the Ancient Roman Empire against the Near East from 31 BC to AD 200

Cho, Young-sik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policy of the ancient Roman empire against the near east argues that the policy was defensive in nature. But I would rather emphasize the policy was aggressive and offensive. When Roman emperors started the war with hostile countries near them, they mobilized their own forces stationed nearby as well as allied forces from far away country to stage the all-out war. They would not tolerate the failure in the war, but enhanced their pride through maintaining the hegemony by winning in the war. In this respect, they were always aggressive and offensive to win the war. Though the Julio-Claudian and Flavian dynasty had sustained intermittently peaceful period with the hostile neighboring countries, it was just a temporary period.

The Roman imperial wars with states in near east were fought in large areas than any other wars the Romans fought. Roman emperors tried to keep the strong boundaries tigh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second century, the system of client-kingdom which served as buffer states to stop the Parthian Empire disappeared. the people in those areas were subject to the direct control of Rome.

This study shows the general tendency reflected in the individual incidents and wars in the near east during the Julio-Claudian and Flavian dynasty before the third century. As the individual historical incidents occurred under the different situations and backgrounds, the military policy adopted by the Roman emperors were diverse. The diverse historical realities at the times of the succession of each emperor played a key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emperor.

Before the third century, with some differences in each emperor, there was consistency in Roman empire's near east policy. Roman empire, per se, maintained expansion of the empire based on keeping hegemony.

Key Words : Roman Empire, Near East, Military Policy, Principatus, Imperialism, Jewish War, Parthia Conflict, Octavianus, Antonius, Trajanus.